

권오신의 문화산책

매헌 권사민의 시문학 (4)

梅軒 권士敏 詩文學

매헌, 어머니 묘소에서 호랑이를 꾸
짓다.

매우 안타가운 비보(飛報)가 진중
(陣中) 날아들었다.

선조 30년 왜장 가토 가요마사(加藤
清正)가 14만을 이끌고 재침략한 정유
재란(1597)이 일어났던 그 해(선조 30
년) 8월 18일 어머니의 부음(訃音)을
받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일시 쓰러져
순간이나마 정신을 놓으셨다.

산성(山城)을 나가는 날, 자신을 지
난 6년간 따랐던 2백 의병들과 통곡
(痛哭)으로 이별하는 자리에서도 “왜
적이 철수할 때까지 분번(分番)하여
곧게 성을 지키라”는 말을 몇 번이고
당부하셨다.

그날로 경주 내남 두릉으로 돌아와
묘친상을 치루고 3년간 묘소(墓塚)를
지켰다.

상중 3년 여막에서 시묘 때도 예에
넘치게 슬퍼하셨다고 적었다. 산세가
깊기로 유명한 경주 운문산(雲文山)
산령에서 여묘(廬墓)할 때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 으르렁 거리자 “나는
영물(靈物)인데 어찌 남의 아버지를
놀라게 하느냐?” 울면서 꾸짖고 바라
보니 호랑이가 고개를 돌리고 가버린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여강 이재희
의 묘갈명에서 발췌)

칠읍 훈도(七邑訓導)로서 일생을
마치셨다.

아들 응립(應立)의 사마시(司馬試)
합격 축하 잔치에 참석하신 권태일(權
泰一) 경주부윤(慶州府尹)이 “산림에
서 성현의 글을 읽으시니 덕을 숨기고
사는 君子라 이를만합니다”고 공의 학
문을 격찬하셨다.

아들 응립의 대과(大科) 응시를 두고
“네가 늙은 아버지와 더불어 성현의 글
을 읽는 것이 즐거운 일인데 또 무엇
을 바라느냐” 하시면서 소년진사(둘째
아들)와 손자의 과거공부를 말리셨다.
소년(少年) 진사(進士)는 요절(夭折)
해서 더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육징불부(六徵不赴: 여섯 번의 부름
에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음)로 이름난
대학인 이승준(李承尊)은 “공의 도학
(道學)과 학문(學文)세계는 당대의 사
표(師表)이어서 영남(嶺南) 후학(後
學)들이 자랑이나 본받을 만하다”는
글을 남기셨다.

임진왜란이전 벼슬이 사옹원(司饔
院) 주부(主簿)와 제용감(濟用監) 직



육연서당

장(直長)에 이르렀으나 벼슬에 연연하
지 않고 평생을 도회(道海: 스스로 학
문과 재주를 숨기고 산다는 뜻)하게
사셨다.

황경원(黃景源) 사적기(史蹟記) (崇
政大夫, 行吏曹判書, 弘文館藝文館大
提學, 奎章閣提學)를 그대로 옮겨보
면 매헌선조는 소년시절을 지나 청년
기로 들기까지는 선고(귀봉공)의 학문
적(學理) 영향을 받아서 회재 선생을
사숙(私塾)했으며 주로 그 시절 소년
것으로 추정된다.

승정대부(崇政大夫)와 행이조판서
(行吏曹判書), 흥문·예문관대제학(大
提學) 등 당대의 석학으로 후세(後世)
에 필명(筆名)을 남기신 황경원 사적
기에 정신세계가 더 돋보이게 기록되
었다.

매헌은 “중국 송나라 때 신유학(新
儒學)의 필수문헌이 됐던 근사록(近
思錄)의 자경편(自警編)을 특히 가까
이 하셨다.”고 적고 양식이 떨어지지
며칠이 지났으나 책 읽는 소리가 끊기
지 않으셨다. 천성이 검소하여 폐양자
(弊陽子: 벼슬로 잔 모자)와 추포의(羅
布衣: 거친옷)를 주로 입으셨으며 길을
갈 때 소매에 책을 넣고 말 대신
소를 타고 다니셨다. 비록 천한 종이라
도 두터운 은혜로 대하시어서 제자들
도 합부로 막지 못했다.

육징불부(六徵不赴: 여섯 번의 부름
에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음)의 정신을
평생 놓지 않으셨던 관란 이공(觀瀾
李公: 李承曾)이 공의 효제(孝悌)와

뛰어난 문학을 보고 탄식하여 이르거
니, “권매헌의 도학과 문학은 실로 우
리의 사표이며 우리 영남의 후학들이
공식(矜式)할만하다.”고 격찬하셨다.

광해군 초기 “경주부윤(慶州府尹)
로 부임한 권태일(權泰一)이 내남 두
릉 육연서당에 이르러 탄식하기를 “그
대는 나라에서 벼슬을 내려도 산림(山
林)에 감추고서 성현의 글을 읽으니 군
자(君子)라 이를만 하구려!”라고 적었
다. 매헌선조의 고결한 학문의 세계를
권태일(權泰一) 경주부윤(府尹)이 먼
저 알아보고 칭송하는 글을 남겼다.

당시 영남 암행어사 류의양(柳義養)
이 올린 장계에서는 더 상세하게 적혔
다. 암행어사 류의양(柳義養)은 “고 사
옹원 주부(主簿) 경주인 권사민은 홍
의장군(紅衣將軍) 광재우군과 함께 화
왕산성(火田山城)을 지키는 계책을 내
어 큰 공을 세웠습니다.

난리가 평정된 후로는 산림에 은거
하면서 학문에 잠심(潛心)하였습니다.
그 충성과 의열(義烈)은 광재우의 일
기(日記)에 소상히 실려 있습니다. 마
땅히 추증(追贈)의 은전을 통해 격려
해 주십시오.”라고 적고 비변사(備邊
使)에 보냈는데 이 장계에서도 올 곧
은 정신세계가 잘 나타나 있다.

영조 때의 문신이시며 지중추부사
(知中樞府事)를 지내신 정대 권상일
(權相一)이 지은 사적기에서도 공이
책을 얼마나 가까이 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집이 가난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며
칠이 지났으나 책읽기를 그만두지 않

으셨다.

천성(天性)이 검소하여 폐양자(弊
陽子: 대오리로 결을 만든 것, 패랭이로
보임)를 쓰고 추포의(羅布衣: 울이 굵
고 거친 베로 만든 옷)를 걸치시고 소
매 속엔 책을 넣고 다니시는 등 한순
간서책을 놓지 않으셨다고 적었다.

매헌공의 가계

자호는 매헌(梅軒), 자(字)는 수언
(粹彦)이다. 공은 사정(司正)공의 5
세손으로 안강 두류에서 병조, 예조정
랑과 합천 경산 영천 군수 등 다섯 고
을의 군수. 현감을 지내신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의 둘째 아들로 명종
12년(1557년 1월 20일)에 태어났다.
배위(配位)는 월성이씨(月城李氏) 승
민공(承閔公)의 따님이시다.

일찍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는 등
향시(鄉試)에 10여회, 회시(會試)에 4
회 합격(及格)하셨다. 당대를 덮었던
학문과 벼슬자리(연양현감)를 내 던지
시고 오직 나라 걱정만 하신 의병참여
기록은 시대는 흘러도 잊히지 않았다.

여묘(廬墓)살이를 끝내시고는 후학
을 가르치는 등 학문에만 전념하시다
인조 12년(1634년) 4월 12일 경주 두릉
에서 78살에 운명하시어 경주 남쪽 명
예동(名譽洞)의 남향 언덕에 장사지냈
으며 그의 문인(門人) 가운데 3년 동안
심상(心喪)을 한 사람이 예닐곱이었다
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공의 7세손 학인(學仁)이 격쟁(擊
錚)으로 정조에게 올린 실록(實錄)으
로 인해 사적(史蹟)이 더 크게 빛나게
되었다.

정조 6년 행 통훈대부겸 사옹원주부
권사민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通訓大夫 行 司饔院主簿
權士敏 贈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兼
經筵參贊官)으로 추증되었다. 문중에
보관되었던 교지(敎旨)와 서지는 후학
들의 학술연구를 위해 현재 국학진흥
원에서 보관되고 있다.

정조 8년 효충(孝忠) 정려(旌閭, 충
신 효자 열녀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그 고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 정
문을 세우도록하고 나라에서 표창 하
는 제도)가 내려졌으며 정조 12년 후학
을 가르친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엔 육
연서당(玉淵書堂)과 충효정려각(忠孝
旌閭閣) 및 모암재, 송모재가 있다.

〈끝〉
(대중회 부회장, 칼럼니스트)

포정(庖丁)의 기술과 도(道)

장자 양생주 편에는 소를 잘 잡는 백정 이
아가기 등장한다. 이름은 포정이다.

어느 날 포정이 문해군을 위해 소를 잡았
다. 그런데 그 솜씨가 기가 막혔다. 손으로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로 짓누르며, 무릎
을 구부리는 능수능란한 동작에 따라 서걱
서걱 소리를 내며 칼이 움직이는 대로 싹둑
싹둑 잘려 나간다. 그 소리 또한 음률에 딱
딱 맞았다. 칼 다루는 솜씨가 거의 달인 수
준이었다. 큰 칼은 큰 칼대로 작은 칼은 작
은 칼대로 그 쓰임새에 따라 부리는 솜씨가
일품이라고 밖에.

문해군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한다. “아,
훌륭하다. 기술도 어찌하면 그런 경지에 이
를 수가 있느냐? 하고 묻는다. 포정이 하던
일을 멈추고 칼을 놓으며 말한다. “제가 좋
아하는 것은 도(道)입니다.” 손
끝의 재주(기
술) 따위보다 훨
씬 우월하죠. 제
가 처음 소를 잡
을 때는 소뿔에
보이는 게 없었
는데, 3년이 지
나자 이미 소의
모습은 눈에 보
이지 않았습니
다. 요즘 저는
정신으로 소를 대하고 눈으로 보지 않습니
다. 눈의 작용이 멎으니 정신의 자연스런 작
용만 남았습니다.



포정해우

천리(天理)의 결에 따라 소가죽과 고기,
살과 뼈 사이의 커다란 틈새와 빈 곳에 칼을
놀리고 움직여 소 몸이 생긴 그대로 따라 갑
니다. 아직 한 번도 살아나 뼈에 부딪힌 일
조차 없습니다. 하물며 큰 뼈야 말할 것도
없죠.”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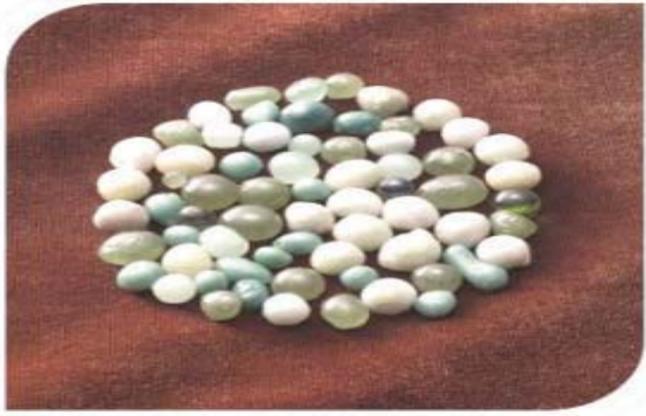
처음에 포정이 시퍼런 칼을 들고 소 앞
에서 소만 보았다. 소가 산처럼 크게 보였
다. 그러다 3년이 지나자 산처럼 보였던 소
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갈까?
소는 그대로인데 눈으로 보지 않고 정신으
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 뼈대와 근육
구조 그리고 이리저리 실타래처럼 얽히고설
키는 힘줄의 결의 따라 칼질을 한다.

뼈와 뼈 사이, 근육과 근육 사이의 빈틈
사이로 칼이 지나갈 뿐이다. 그래서 포정의
칼은 살아나 뼈에 부딪히질 않는다. 시퍼런
칼을 들고 소를 잡겠다고 설칠 때는 소도 괴
롭고 포정도 힘들었다. 그런데 어떤 3년이
지나니 칼이 뼈 사이를 지나가도 소는 아픈
줄도 모른다. 소도 모르는 사이에 소가 해체
되어 버린다. 죽는 줄도 모르게 죽어 버린
다.

포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 비법은
이렇다. “솜씨 좋은 소잡이는 보통 1년 만에
칼을 바꾸는 것은 삶을 가르기 때문이죠. 평
범한 보통 소잡이는 달마다 칼을 바꿨다.
무리하게 뼈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렇
지만 제 칼은 무려 19년이나 되어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칼날은 방금 솥물에 간 것
같습니다.
저 뼈마디에는 틈새가 있고 칼날에는 두
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께 없는 칼을 빈틈
에 넣으니 널찍하여 칼날을 움직이는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한다.
갓 소잡기 시작한 초보생들은 살과 살의
틈새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어설픈
칼질로 무리하게 마구 살을 가른다. 잡히는
소도 아프고 잡는 백정도 힘이 든다. 임문한
지 수년이 되었으나 소 잡는 기술의 발전이
없는 평범한 소잡이는 매달마다 칼을 바꾼
다. 칼질할 때마다 단단한 뼈와 부딪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달인 소잡이 칼
쓰는 솜씨는 가
히 예술이다.
살과 살 사이
로, 뼈와 뼈 사
이의 빈 허공으
로 칼이 지나갈
뿐이다. 소 뼈의
구조가 흰히 보
인다. 근육의 결
그대로 지나갈
뿐이다.
그물망 같은 힘줄의 얽힘도 같은 피해 간
다. 19년이나 된 칼날은 전체 구조를 보고
흐르는 결 따라 그물망을 피해 허(虛)와 공
(空)에서 춤출 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가 소의 구조는
아닌지 모르겠다. 초보 소잡이처럼 의욕만
앞서서 소만 보고서 칼질하며 마구 돌진한
다. 세상 구조를 볼 수 없고 읽을 수도 없다.
세상 여기저기에서 초보자들이 많이 아파한
다. 나도 아프고 상대도 아프다.
치렁치렁하게 그물망처럼 얽힌 세상이 그
저 원망스러울 뿐이다. 그렇다고 날마다 달
마다 시퍼렇게 칼날을 세우고 아무리 휘둘
러도 세상살이는 늘지도 않는다. 고만고만
하다.
이 칼을 썼다 저 큰 칼로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어쩌랴 아직도 세상의 결이 보일 리
없다. 한참 칼을 휘두르다 저만치 떨어져 세
상을 보니 틈새가 보이기 시작한다. 드디어
세상사의 사이사이가 넓게 보인다. 세상 돌
아가는 이치가 체득이 된다.
포정이 칼을 들고 소를 마주하듯 우리는
날마다 세상이라는 소와 마주한다. 소가 산
처럼 보이는 초보 소잡이인지, 아니면 아직
도 어설픈 칼 솜씨로 세상을 잡겠다고 설쳐
대는 겁없는 소잡이인지, 그것도 아니면 소
뼈대의 구조와 결을 알고 그물망처럼 얽히
고설린 힘줄 사이의 커다란 빈틈으로 칼질
하는 고수인지.
편집국장 권행완

장례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사는 묘역관리 및 화장 후 유골 보존에 세계 발명 특허 장치에 의한 사리화(봉안옥)로 생성시켜 영구 정결 보존하도록 납골당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성공 현재 전국 4,000여기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봉안옥(奉安玉 자화사리) 견본 사진



표준 봉안함



기독교 성서형 봉안함



불교형 봉안함

◆ 봉안옥(奉安玉 자화사리)의 안내

- ◆ 고인을 깨끗이 봉안할 수 있어 사자의 품위와 평안을 유지하고 유족에게 안심을 통한 또 다른 기쁨을 드립니다.
- ◆ 유골이 구슬(사리) 모양으로 생성되어 거부감과 변질이 없습니다.
- ◆ 영옥(靈玉)은 종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 ◆ 깨끗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돌보지 않는 산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족에게 효(孝)사상을 고취시킵니다.

주식회사 본향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345번지 165, 홈페이지 : www.holytec.com / 상담문의 : 010-5224-0079 고문 권영순